



# KAGES NEWSLETTER

WWW.KAGES.ORG

한미 지리정보 및 환경과학 협회 소식지

발행인: 윤혜진 편집: 이지은

From The President	1	IJGER	6
Special Contribution I	2	Members' News	7
Special Contribution II	6	About KAGES	7

## From The President

### 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KAGES 회원 및 후원자 여러분? 저는 2020-2021년에 새로이 회장을 맡게된 윤혜진이라고 합니다. 나름 학회에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고 싶어서 이사진에 참여하고 부회장 직을 거쳐 회장까지 오게 되었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려니 기쁜 마음보다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앞서 많은 회장님들 그리고 이사님들이 훌륭하게 일을 해오셨기에 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어야 한다는 중압감이 듭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covid-19의 유행이 이 글을 읽고 계실 모든 분들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리 학회의 정기 총회 등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번 연도의 여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 글을 쓰기 전에 대한지리학회 뉴스레터에 저희 KAGES의 소개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사업을 실행하여 왔는지, 혹은 회원님들께 어떠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니 몇가지를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학생회원님들의 학회 참석 및 커리어 성장에 트래블 어워드 및 페이퍼 어워드, 또한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했었고, 둘째, 한국 밖에 거주하고 계신 회원 여러분들 또는 수학하고 계시는 회원분들과 한국 내의 지리학계 및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과의 학문적 연계 강화, 셋째, 저희 학회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Geospatial and Environmental Research를 창립하여 노력 끝에 Scopus의 학술지 목록에 올리는 등 많은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올 한 해는 지금껏 해왔던 중점 사업을 기반으로 1) 일반 회원님들과 학생 회원님들의 의사 소통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2) 학생 회원님들간의 교류가 더 활발히 이루어 지도록, 3) 이를 위해 KAGES 홈페이지의 회원명단 등이 잘 검색되게 하고, 4) 학회 저널인 International Journal of Geospatial and Environmental Research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 도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할까 합니다. 이는 단지 저와 이사진들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회원님들 개개인의 관심 및 성원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애정과 관심 계속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제안, 또는 조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yoon3@uwm.edu)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이사진 분들은 항상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윤혜진 드림

Dear KAGES members,

It has been such an unexpected year to everyone due to covid-19. KAGES could not hold an on-site general meeting this spring and it's been a great stress to everyone. I hope all stay safe and healthy. It is a great pleasure for me to serve as the president for 2020-2021. Based on the existing activities, I hope that KAGES continues to work on the following issues. 1) promoting vigorous communications between the general members and the student members, 2) encouraging interactive networking among the students members, 3) helping all these attempts through technical support on the KAGES website, 4) supporting our academic journal, International Journal of Geospatial and Environmental

Research. If you have any further suggestions or need any help from KAGES, feel free to contact me (yoon3@uwm.edu) anytime. I and KAGES board members are happy to hear from you.

Sincerely,  
Hyejin Yoon  
September 2020

## Special contribution I

### Covid-19 "전문가"가 되어 생각해본 지식대중화의 어려움



손정원 (Jung Won Sonn)  
Associate Professor  
Bartlett School of Planning  
University College London

저는 동아시아 지역경제를 정치경제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지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지리학자라고 해도 되겠고, 정치지리학자라 해도 될 듯 싶습니다. 보건관련 연구는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그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Covid-19 "전문가(sic)"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나라의 언론들과 인터뷰도 하고 학술지에 초청논문도 쓰고요. 저로서는 흔치 않은 경험이었기에, 그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써 봤습니다. Covid-19 보다는 언론, 글쓰기, 지식의 대중화에 관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 자고 일어났더니 코비드 19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주요 도시에서 도시계획학과 교수로 있는 한국인이 많지는 않아서 그런지, 전부터 한국 언론 인터뷰 요청은 많았다. 하지만 자주 응하지는 않았다. 내 말이 엉뚱한 맥락에서, 심지어는 거의 반대의 의미로 나가는 것은 좀 많이 기분 나쁜 일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언론에 나가는 것은 내 성격과 잘 맞지 않는 일이기도 하다. 대중적인 언어에 능하지 못하고, 소통에 노력할

성의도 없는 사람이라서 말이다. 그래서 내 연구분야와 딱 맞는 주제가 아니면 언론에 내 이름을 내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을 지난 몇 년간 잘 지켜왔다.

그랬던 내가 지난 2 월말에 내 원칙을 스스로 깨고 언론에 직접 글을 쓴 것이다. 학교 언론 담당자가, 자기가 Guardian 이나 Time 의 지면을 섭외할 테니 코로나 사태에 관해 글을 써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그러자고 한 것이다. 영국에서 교수로 있으면서도 영국에서 community service 활동을 한 바 전혀 없고, 심지어 학계활동도 영국보다는 미국, 중국, 한국에서 주로 하다 보니, 항상 나는 뭔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덜 하는 사람이라는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그 자격지심 좀 떨어보자 싶어서 대중적인 글을 써 보기로 했던 것이다. 한국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내가 아는 것들을 엮어, 영국사람들이 읽어보면 재미있을 수도 있을 수준에서 한국의 방역에서 IT 기술 활용에 대해 기사를 썼다.

그게 영국사람들이 평소에 별 관심이 없는 한국이야기라서 그랬는지, 그 때만 해도 영국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내 글이 시원찮아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요 미디어에서는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Conversation.com 이라는 온라인 매체에 실리게 되었다. 작은 매체에 게재되었으니 별로 반응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리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3 월 말이 되면서 의외로 엄청난 반응이 왔다. Facebook 과 Twitter 로 수백회 share, retweet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언론인들도 내 글을 접한 것인지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그 중에는 알자지라 (Al Jazeera), 독일의 도이체벨레 (Deutsche Welle), 싱가포르의 Channel News 등 TV 방송도 있었고, 미국 Christian Science Monitor, 브라질 Exame, 덴마크 Weekendavisen 등의 활자매체도 있었다. 나중에는 감당이 되지 않아 군소매체에서 들어오는 인터뷰는 거절해야 할 정도까지 되었다.

#### 네러티브가 증거보다 힘이 세다!

그 과정에서 내게 아주 흥미로웠던 것은 언론인들이 보여준 자기 내러티브에대한 완강한 고집이었다. 아시아인들은 집단주의적 성향이 있어서 개인이 집단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한다고 전제해 놓고, 그것이 방역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동선추적과 같은 기법은 개인주의성향이 강하고 민주주의의 전통이 있는 서구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러티브를 전개하는데, 그

과정에서 내 인터뷰가 조각조각 나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되었다. 나는 동선추적이 사생활침해의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선추적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 크게 침해하는 lockdown 을 방지할 수 있으니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 또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에 대한 충격도 최소화할 수 있으니 그렇게 쉽게 기각해버릴 대안은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항상 말했지만 내 주장을 보도해 준 매체는 한 곳도 없었다. 자신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내러티브에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내러티브의 기저에는 “아시아적 가치 (Asian value)”가 있는 듯하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아시아적 가치는 싱가포르의 전 수상 리관유가 주창한 것으로, 학술적인 논쟁을 다 사상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보자면 박정희의 민족민주주의론과도 비슷하다. 서구에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있는 것과 달리 동아시아에는 집단주의적, 위계주의적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서구적 민주주의는 동아시아사회와 잘 맞지 않으며, 오히려 집단주의적, 위계주의적 특성을 잘 활용되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이 서구에서 꽤 널리 받아들여져 있어서, 이걸로 아시아의 여러 현상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한국의 방역 성공을 중국의 빠른 회복 등을 한데 묶고, 양자 모두 집단을 위해 개인이 희생하고, 정부의 명령을 따르는 데 익숙해져 있는 국민성을 근거로 들었던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이런 문화환원론적 설명은, 뭔가 근본적이고 심오해 보이긴 하지만 개별 사안들에 대한 무지와 비논리를 가리는 도구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그 반대의 증거가 이미 존재한다. 사회학자 임동근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 위계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방역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정치이념과는 상관없이,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민주시민” 들이 방역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천관울, 2020). 그런 연구를 알지 못한다 해도,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들만 취합해보도 집단주의, 위계주의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방역을 잘 했다는 설명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중국의 방역은 lockdown 방식이 핵심이니까 한국보다는 오히려 프랑스, 영국과 가까운 것이다. 둘째로, 한국사람들, 매너는 위계 순응적일지 몰라도 체제에 그렇게 복종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수십년간의 민주화투쟁을 봐도 그렇고, 최근 현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방역정책에까지 저항하는 우파세력을 봐도 그렇다. 권위에 더 잘 순응하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는 일본이나 싱가포르인데, 그 둘의 방역성과는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훨씬 낫지만 한국보다는 못하다.

한국이 방역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 Sonn & Lee (2020)에서 썼 듯이, 몇 년전 겪었던 MERS의 경험이 핵심이다. 당시의 실패를 반성하면서 관련 전문가들은 제도를 만들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만들어 두었다. MERS 확산 당시 중앙정부와 대립하면서 서울시가 시행했던, 정보공개를 중심에 놓은 대응방식이 본보기가 되었다. 집권세력의 국정운영방안도 이런 전문가들사이의 합의와 모순되지 않았다. 박근혜정부는 일을 조용히 처리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었는데, 바로 그 성향이 MERS 방역 초기 실패도 낳았고, 세월호침몰에 대한 음습한 대응도 낳았고, 중국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정치적 실패도 낳았다. 그런 정권이 탄핵되고 성립된 정권이라면, 정권의 이념이나 대통령개인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박근혜정부의 반대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해가면서 일을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려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원래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것은 정권의 이념적 성격과 무관하게 아주 흔한 일이지만, 이번 방역정책의 경우 전문가들이 MERS 이후에 합의하게 된 정책의 방향과 현 정부의 정치적 성향이 대체로 맞아떨어진 덕분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논의는 서구 언론인들의 관심 밖이다. 내러티브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내러티브와 상충하는 증거가 제시되면, 대부분의 경우 폐기되는 것은 내러티브가 아니고 증거이다. 여기서 언론인들이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Kuhn 이나 Lakatos 같은 과학철학자들이 이미 몇 십년 전에 설명했듯이, 하나의 반증으로 기존이론이 폐기되는 Popper 적 과학진보의 상황은 과학중의 과학인 물리학에서도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그러니 언론인들이 증거가 많이 축적되기 전까지 자신들의 기존 내러티브에 집착하는 것, 매우 자연스러운 것일 뿐 아니라 바람직한 것이기도 하다. 하나의 증거를 보고 기존의 내러티브를 폐기하기 보다는, 일단은 비슷한 증거가 충분히 쌓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나. 그들 자신을 위해서나 대중을 위해서나.

**문화환원론은 편리하다!**

또 한가지, 그 언론인들이 가지고 있던 네러티브가 왜 하필 문화환원론적인 네러티브였는지에 관해서도 생각해보았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인과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근본적인” 설명을 찾아 문화적 차이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은 서구 언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과학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잘못이 흔한 이유는, 결국 문화환원론적 설명이 아주 편리하기 때문 아닐까 싶다.

내게 익숙한 사회에서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어떤 현상이 내게 익숙하지 않은 나라에서 일어났을 때, 그 차이의 원인은 문화적 차이라고 해버리면 설명이 쉽다. 그 문화가 왜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문화는 꽤나 빨리, 꽤나 쉽게 바뀐다는 점은 쉽게 간과된다. 예를 들어보자. 80년대 초반만해도, 한국인은 수천년간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땅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그래서 고층아파트를 싫어하고 단독주택을 좋아한다고 흔히 이야기했었다. 그 때는 그게 상식이었다. 40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한국 문화의 중요한 일부이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다들 믿고 있다. 수천년 농경문화에서 비롯된 땅에 대한 집착이 40년만에 사라졌다! 사실 수천년 지속된 문화보다는 개인이 자라면서 본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40년이면 문화가 바뀌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다. 아파트에서 나고 자란 세대가 이미 40대가 될 시간이니 말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자. 한국은 원래 교육열이 높은 문화를 갖고 있어서 그것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다들 알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 해방당시 한국의 부모들은 다른 모든 저발전국의 부모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해방, 전쟁, 가난을 뚫고 모든 것을 희생해가면서 자식을 교육시킬만큼 교육열이 높은 사람들,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은 50년대까지 문맹률이 아주 높은 편에 속했다. 비슷한 시련을 겪은 다른 저소득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열은 경제성장이 본격화된 이후에 생긴 문화현상이다. 소설 [84년생 김지영]에도 나오고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들은, 딸이 공장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아들 대학 보내는 성차별적 교육열 조차도 60년대 이후, 대학나오면 취직할 수 있는 좋은 직장들이 생긴 다음에 발생한 현상이다.

이렇게 빨리 바뀌는 것이 문화이니, 어떤 변하지 않는 문화가 있다면 그것이 변하지 않은 이유를 찾는 것이 사회과학자의 일일 것이다. 그 문화를 가지고 다른 현상을 설명하려 하면

연구를 절반만 한 것이다. 사실 문화환원주의적 설명은 “개네 원래 그렇잖아”, “거기는 원래 그래” 이런 말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러냐고 묻는데, 원래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고 답하는 것은 답이 아니지 않나. 하지만 인간은 그런 대답에 쉽게 현혹된다.

그리고 그 대상이 자신이 잘 모르는 타자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회과학적 지식은 없고, 타자들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기술적 (descriptive) 정보가 조금 있는 경우, 그 정보에 기반하여 다른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 한다.

### 지식의 사회적 relevance 을 얻기 위해선 지식의 질을 저하시켜야 하므로!

그러니 학자가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언론을 통해 대중을 설득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워낙 어려운 일이니, 학계내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정책학에는 knowledge utilization studies 라고 해서, 학술연구가 정부정책에서 활용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연구분야가 있다 (Weiss, 1972; Patton, 2008). 지리학에서도 지리학 연구가 어떻게 하면 국가나 시민사회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Ackerman, 1962; Banks and MacKian, 2000; Imrie, 2004; Massey, 2000; Markusen, 1999; Martin, 2001; Sonn and Kang, 2016). 상대가 언론이든, 정책결정자이든, 일반대중이든, 학술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 것인지에 관해 연구까지 하게 된 것이다.

개인적으로, 사회과학자의 효용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영국에서는 정부, 대학, 연구비 지원 재단들 모두 학자들에게 연구의 사회적 효과를 증명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그 증명이 대다수 교수들, 특히 인문사회과학계열 교수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다. 예전에는 사회 전체에 지식의 stock 이 부족했으니, 모르는게 있으면 교수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당장 필요한 지식은 각종 컨설턴트들과 언론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흔히 믿는다. 컨설턴트들과 언론인들의 주장에는 뻔히 보이는 오류가 많이 들어 있지만, 그런 오류는 대부분 시대적 유행에 기반한 것들이라서, 사회과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해봤자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비아냥만 듣고 끝나거나, 온국민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혼자 잘났냐 이런 소리 듣기 끝났기 쉽상이다. 십년쯤 지나서 연구자의 발언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다 해도,

그 때 “거봐라 내 말이 맞았지” 했다가는 “넌 아직도 그 얘기냐”라는 소리만 듣는다. 그 때는 이미 다른 유행이 대중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또, 일반인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른 분야 학자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똑같이 힘들다. 도시계획학자로는 매우 드물게 다른 학문분야에 꽤 큰 영향을 미쳤던 Richard Florida 의 사례를 보자. 그는 사실 도시계획보다는 경제지리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고, 그를 유명하게 만든 creative city 개념도 도시계획보다는 경제지리쪽 개념이다. 경제지리에서는 그의 연구를 완전히 영터리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그런 비판자들이 경제지리 내부에서는 Richard Florida 보다 더 지명도 높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학자들이나 문화학자들은 Richard Florida 의 말만 듣고, 그를 비판한 다른 경제지리학자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 결국, 학자들도 자기 분야를 벗어난 주제에서는 일반대중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연구결과보다는 시대적 유행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다. 다른 분야 학자들에게도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전달하기가 이렇게 힘드니,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겠나.

여기에 더해, 한국밖에 한국에 대해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은 앞서 언급했던 아시아적가치 등 각종 문화화원론과도 부딪히게 된다. 한국밖의 언론들은 한국사회에 대한 진지한 연구결과보다는, 세계적으로 이슈가되는 현안들, 즉 방역이나 남북관계등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이 당연한데, 차라리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면 좋겠으나 언론인들은 항상 몇 개의 전제를 가지고 질문한다. 앞서 언급한 아시아인들은 위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또는 북한의 정권은 일관성이 없는 레짐이라는 전제 등이다. 그 전제를 흔드는 답을 하게 되면 그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네러티브가 손상되는데, 이미 수고해서 한 인터뷰를 통째로 버리고 싶지는 않으니 인터뷰 내용을 잘라서 여기 저기 집어넣는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의 진의는 왜곡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중적 소통과 학자적 전문성, 둘 다를 완벽하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희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이 때,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 같다. 처음에는 전문성을 조금만 희생하면 대중성을 꽤 많이 강화할 수 있겠지만, 점점 희생해야할 전문성은 많아지고 얻게 되는 대중성은 적어지는 것

같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멈춰야 할까? 정답은 없는 것 같고 각자 성격에 맞게 살면 되지 않을까 싶다. 내 성격에는 내 연구에 대해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내게 재미있는 연구만을 하고 살았던 몇 달 전까지의 태도가 잘 맞는 것 같다. 내가 인정욕구가 전혀 없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고, 대중의 인정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몇몇 학자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에서 기쁨을 찾던 그 태도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이다.

- Ackerman, Edward A. (1962) Public policy issues for the professional geographer.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52(3) 292-298
- Banks M & MacKian S (2000) Jump in! The water's warm: a comment on Peck's 'grey geograph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New Series* 25 (2) pp. 249-254
- Imrie R (2004) Urban geography, relevance, and resistance to the 'policy turn' *Urban Geography* 25 697-708
- Langer, E., Blank, A., & Chanowitz, B. (1978). The mindlessness of Ostensibly Thoughtful Action: The Role of "Placebic" Information in Interperson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6), 635-642.
- Markusen A. (1999) Fuzzy concepts, scanty evidence, policy distance: the case for rigour and policy relevance in critical regional studies *Regional Studies* 33 869-84
- Massey, D. (2000) Practicing political relevance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25 131-3
- Patton, M. Q. (2008) *Utilization-focused evaluation* (4th ed.). Thousand Oaks, CA: Sage.
- Sonn, J. W. & Kang, H. (2016) Bureaucratic Rationale and Use of an Academic Concept in Policy-Making: The Rise and Fall of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in South Korea. *Regional Studies*, 50(3), 540-552.  
<https://doi.org/10.1080/00343404.2015.1052061>
- Sonn, J. W., & Lee, J. K. (2020) The smart city as time-space cartographer in COVID-19 control: the South Korean strategy and democratic control of surveillance technology.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00(00), 1–11.

<https://doi.org/10.1080/15387216.2020.1768423>

Weiss, C.H. (1972) *Evaluation research: Methods of assessing program effectiveness*.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천관울 (2020) 코로나 19 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 의외의 응답 편, [시사 IN] 6 월 22 일. URL: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32>.

## Special contribution II

### GIS 분야 온라인 그룹 미팅



강전영  
(Jeon-Young Kang)  
Assistant professor  
Dept. of Geography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지난 6 월 26 일, GIS 및 GIS 의 응용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박사 후 연구원,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 간의 그룹 미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략적으로 20 여명의 KAGES 학생 회원 및 일반 회원 (박사 후 연구원)과 비회원 분들께서 참석하였습니다. Zoom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5-6 개의 소 그룹으로 나누어, 자기 소개 및

연구 소개 등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기적으로 2-3 개월에 한번씩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앞으로는 교수님들도 모셔서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위 모임과 관련해서는 카카오톡에서 그룹 채팅 방이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28 명의 대학원생 및 박사 후 연구원 들께서 컨퍼런스 혹은 연구 펀딩 기회와 같은 유용한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위 모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강전영 (geokang@kongju.ac.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IJGER

International Journal of  
GEOSPATIAL AND ENVIRONMENTAL RESEARCH

Editor-in-Chief

Dr. Woonsup Choi (최운섭)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Geospatial and Environmental Research (IJGER) is an international journal sponsored by the Korea-America Association for Geospatial and Environmental Sciences (KAGES). As a non-profit organization, KAGES fosters scientific interactions between Korea and the USA for Korean or Korean-American students, scientists, and professionals in the geospatial-technical and environmental science fields. As part of its mission, KAGES launched IJGER to provide a forum for discussion between its members and researchers in the field. KAGES has the ultimate authority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IJGER. IJGER welcomes contributions that fit our aims and scope from anywhere by anyone in the world.

### Current Issue: Volume 7, Number 3 (2020)

Research Article: Lee, Youngho; Lee, Yubin; Seong, Jeong; Stanescu, Ana; and Hwang, Chul Sue (2020) "A Comparison of Network Clustering Algorithms in Keyword Network Analysis: A Case Study with Geography Conference Present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Geospatial and Environmental Research*. Vol. 7: No. 3, Article 1. Available at:

<https://dc.uwm.edu/ijger/vol7/iss3/1>

Editor-in-Chief: Dr. Woonsup Choi (Univ. of Wisconsin-Milwaukee)

Assistant Editors: Dr. Sunhui Sim (Univ. of North Alabama) & Dr. Injeong Jo (Texas State Univ., San Marcos)

Administrator: Dr. Woonsup Choi (Univ. of Wisconsin-Milwaukee)

Submit your manuscript to IJGER 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feel free to contact the editor of IJGER, Dr. Woonsup Choi ([choiw@uwm.edu](mailto:choiw@uwm.edu))

## Members' News

### Promotion & Professional Activity

- 강전영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hired as an assistant professor

### Research

- 강전영 (Kongju National University): **Publication:** Kang, J. Y., Michels, A. C., Lyu, F., Wang, S., Agbodo, N., Freeman, V. L., & Wang, S. (accepted). Rapidly Measuring Spatial Accessibility of COVID-19 Healthcare Resources: A Case Study of Illinois, USA.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Geographics*.
- 김민지 (University of Wisconsin - Milwaukee): **Award:** The Percy Buchanan Prize from the Midwest Conference on Asian Affairs for the best graduate paper on Northeast Asia winner, "Rethinking Displacement: Gentrification and 'Un-homing' in a Disadvantaged Neighborhood in South Korea."
- 반효원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Grants: Co-PI:** 2020 Standardization of Coastal Feature Names and its Informing. (April 2020~November 2020). With Drs. Hyo Hyun Sung (PI), Okgyung Yoon (Co-PI), Hyunwook Lee (Co-PI), Hyejin Kim (Co-PI), and Heechul Yang (Co-PI). Funded by The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South Korea (approximately \$233,222); **Co-PI:** Proposal for 2020-2021 Office of Research and Sponsored Programs (ORSP) Multidisciplinary Research Grants (2020). Improving STEM Education by Integrating Geospatial Technologies into K-8 Mathematics Curriculum. With Drs. Linna Li (PI), Shuhua An (Co-PI), and Jyotsna Pattnaik (Co-PI). Funding by ORSP,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15,000).

- 심선희 (University of North Alabama): **Publication:** Moran, P.A., Willis, E. and Sim, S., 2020, "Object-Based Image Analysis of Slum Settlements: A Case Study from Dar es Salaam, Tanzania" *International Journal of Undergraduate Research and Creative Activities*, 12(1), pp.1-10. DOI: <http://doi.org/10.7710/2168-0620.0294>; **Professional certificate:** Licensed Pilot of An Ultra-Light Vehicle (Drone) by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in Korea on July 17, 2020 (in Korean,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 **Grant:** Sunhui Sim, 2020, Ben H. Craig Professorship (Internal), "Exploring local knowledge and practices towards malaria in the communities around the Gilgel Gibe III Hydroelectric Dam, Ethiopia", Fund awarded: \$4997.12 to be used for field surveys in Ethiopia.
- 이종희 (University of Kentucky): **Award:** Political Geography Specialty Group (PGSG) Graduate Student Paper Award co-winner, "Micropolitics of sleepless in Seoul: Understanding South Korean young adults' nighttime practices at 24-hour-café's through Foucault's conceptualization of governmentality"
- 이지은 (University of Northern Colorado): **Publication:** Ramírez, I.J.; Lee, J. COVID-19 Emergence and Social and Health Determinants in Colorado: A Rapid Spatial Analysis.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2020, 17, 3856. <https://doi.org/10.3390/ijerph17113856> ; **Professional certificate:** FAA Certification of Remote Pilots (Part 107).

## About KAGES

### Mission

As a non-profit organization, the mission of KAGES is to foster the following for Korean or Korean-American students, scientists and professionals in the geospatial-technical and environmental science fields:

- Support for students developing their career successfully through education and research
- Support for members developing research, teaching and services

- Promoting interactions between South-Korea and USA in geospati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science fields

Student Board Member & Website Management:  
Hanbyeol Jang  
General Board Member: Dr. Jieun Lee

### Bylaws

- The KAGES Bylaws was revised and approved by the KAGES Board Members on Friday, April 10, 2015 and the revised version is accessible in PDF format from the following link: KAGES Bylaws.

(<http://www.kages.org/season2/wp-content/uploads/2015/04/KAGES-Bylaws.pdf>)

### Organization

- KAGES was founded on 11/17/2008 with eight founding board members:

Dr. Gi-Choul Ahn	Dr. Yeong-Hyun Kim
Dr. Heejun Chang	Dr. Sun Yurp Park
Dr. Jinmu Choi	Dr. Jeong Chang Seong
Dr. Jongnam Choi	Dr. Changjoo Kim

### Officers (July 2020 – June 2021)

President: Dr. Hyejin Yoon  
Vice President: Dr. Injeong Jo  
Secretary: Dr. Misun Hur  
Treasurer: Dr. Hosuk Lee

### 2020-2021 Board members

Scholarship Management: Dr. Misun Hur  
IJGER Editor-in-chief: Dr. Woonsoo Choi  
Research Committee: Dr. Kyung In Huh  
Communication and Public Relation Committee: Dr. Sanglim Yoo and Dr. Ho-Seop Cha  
Career Development Committee: Dr. Injeong Jo  
Legal Committee: Dr. Hyejin Yoon  
Technical Support: Dr. Hyowon Ban, Dr. Sanglim Yoo, Dr. Hyejin Yoon  
International Relations: Dr. Ho-Seop Cha and Dr. Jeon-Young Kang

### Newsletter editor

Dr. Jieun Lee

### Membership Benefits

- Members can actively involve in opportunities by KAGES to network with your professional peers for the fields of geo-spatial and environmental science.
- Members are eligible for a variety of KAGES awards and can apply grants by KAGES.
- Members have a voting right for KAGES elections.
- Members can access members-only information at KAGES website.
- Each KAGES member is also to become a member for KSEA-Georgia Chapter during KAGES membership.
- For renewal of membership, or join the KAGES, please visit the KAGES website at <http://www.kages.org> or email at [support@kages.org](mailto:support@kages.org)